

재정통계 BRIE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in BRIEF

국채 발행량

Treasury bonds issu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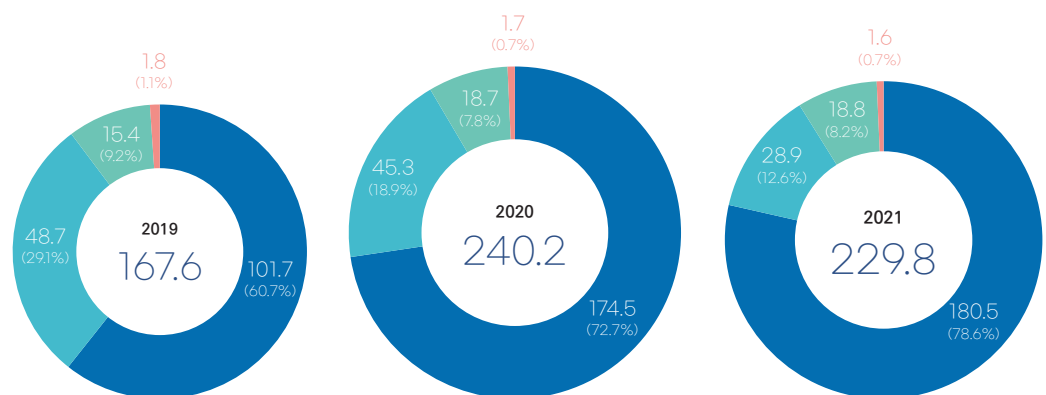
No 15

규모 Volume

2021년 국채 발행량은 229.8조원이며, 이중 국고채 발행량은 180.5조원(78.6%)

단위: 조원

● 국고채 ● 재정증권 ● 국민주택채권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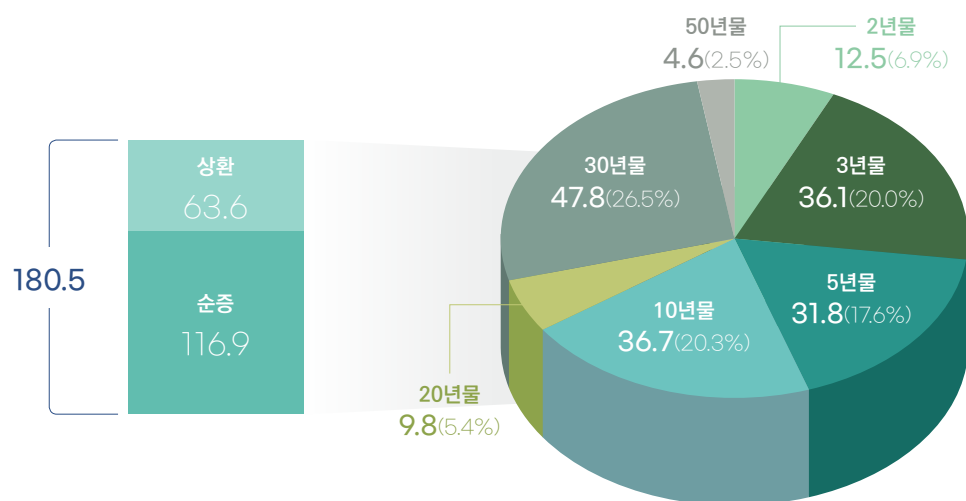


※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구성 Component

2021년 국고채 발행량 180.5조원 중 상환규모 63.6조원을 제외한 순증규모는 116.9조원
상환기간별로는 2, 3, 5년물이 44.8%, 10년물 이상이 55.2%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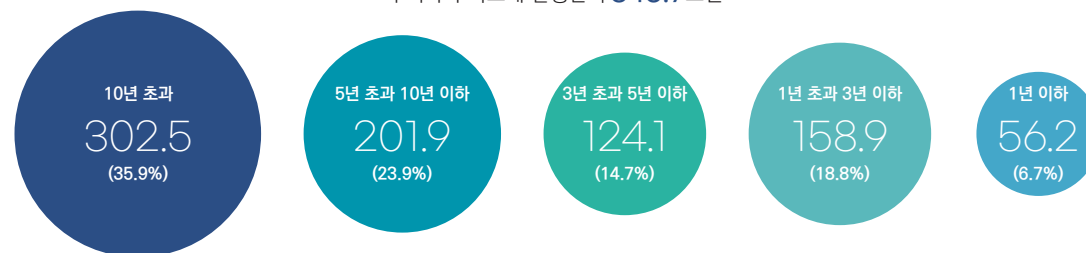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백서' 각 연도

비교 Comparison

국고채 잔존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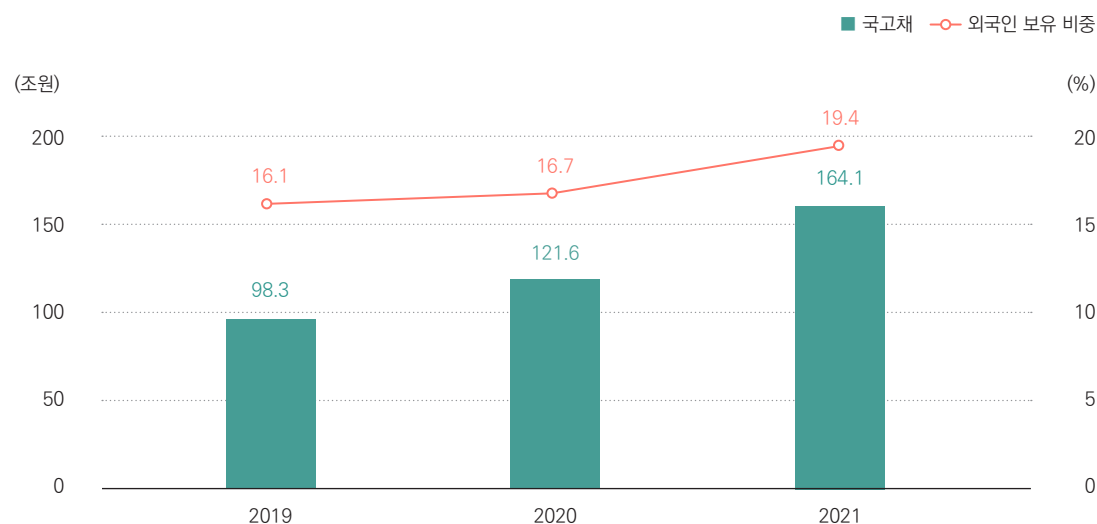
단위: 조원

우리나라 국고채 발행잔액 843.7조원



※ 21년도 연말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규모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백서' 각 연도

용어해설 Glossary

국채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재정운영 자금 조달이나 기 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
국고채무부담행위, 차입금과 함께 중앙정부 금전 채무의 구성요소이며 국고채권, 국민주택자금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재정증권 등 4종류를 발행

국고채권

국가의 재정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국채법에 근거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 명목채권과 물가연동채권으로 나누어 발행
명목 국고채는 만기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물로 구분

물가연동채권

명목채권의 이자 가치가 인플레이션에 따라 하락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이자 지급액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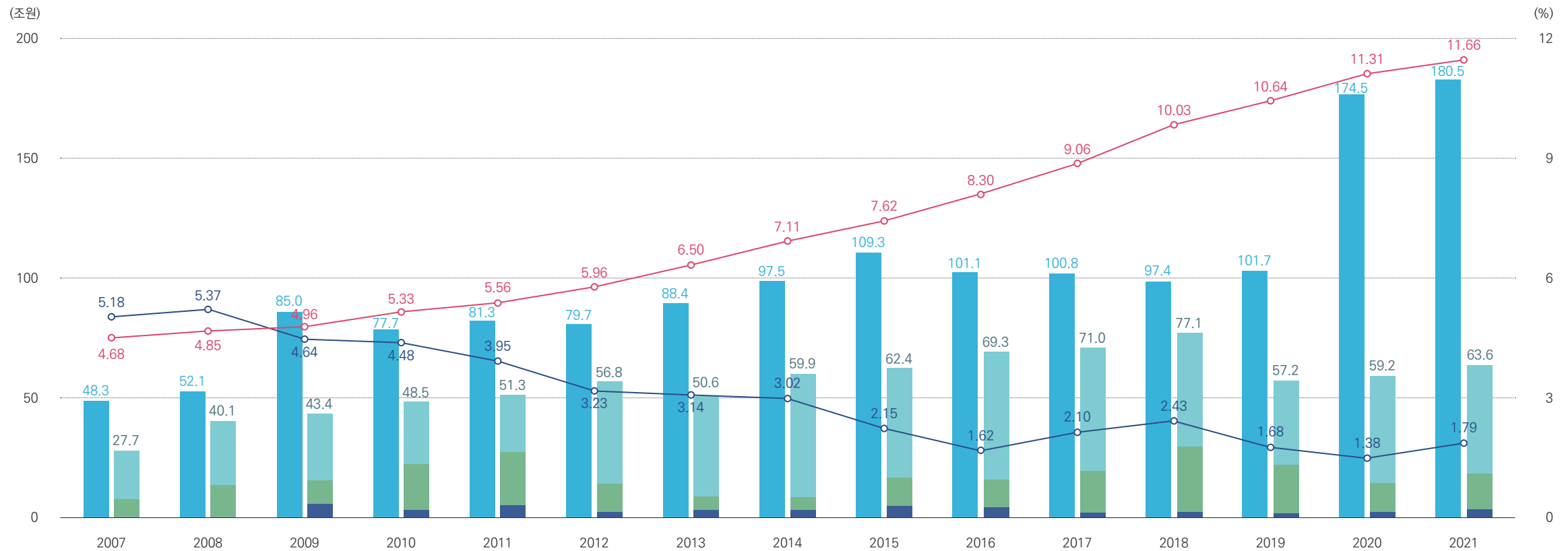
바이백(Buy-back), 조기상환

만기도래 전인 시중의 국고채를 정부가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
국고채 만기를 연도별, 분기별로 평탄화하기 위해 대개 신규 차환발행으로 실시

교환

기준에 발행된 국고채를 신규로 발행한 국고채와 교환하고, 국고채전문딜러와는 그 차액만을 정산하는 방식의 상환

■ 국고채 발행 ■ 만기상환 ■ 바이백(조기상환) ■ 교환 ○ 평균조달금리(%) ○ 평균잔존만기(년)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고채 발행(A)	48.3	52.1	85.0	77.7	81.3	79.7	88.4	97.5	109.3	101.1	100.8	97.4	101.7	174.5	180.5
상환(B=C+D+E)	27.7	40.1	43.4	48.5	51.3	56.8	50.6	59.9	62.4	69.3	71.0	77.1	57.2	59.2	63.6
만기도래(C)	20.1	26.8	27.9	26.2	24.2	42.8	42.1	51.6	45.7	53.9	51.7	47.9	35.4	45.1	45.4
바이백(조기상환, D)	7.6	13.3	10.0	19.4	22.3	12.0	5.6	5.2	12.1	11.3	17.6	27.1	20.2	12.0	14.9
교환(E)	-	-	5.5	2.9	4.8	2.0	2.9	3.1	4.6	4.2	1.7	2.2	1.6	2.1	3.3
국고채 잔액(전년잔액+A-B)	227.4	239.3	280.9	310.1	340.1	362.9	400.7	438.3	485.1	516.9	546.7	567.0	611.5	726.8	843.7
평균조달금리(%)	5.18	5.37	4.64	4.48	3.95	3.23	3.14	3.02	2.15	1.62	2.10	2.43	1.68	1.38	1.79
평균잔존만기(년)	4.68	4.85	4.96	5.33	5.56	5.96	6.50	7.11	7.62	8.30	9.06	10.03	10.64	11.31	11.66

본 재정통계 BRIEF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오픈 포맷 데이터로 제공
 <경로> 공공데이터포털 > 데이터찾기 > 데이터목록 > 재정통계 BRIEF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백서' 각 연도